

지역 소식통

부안군, 우수 지자체 선정
행안부 장관 표창

부안군이 2021년 하반기 적극 행정 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돼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25일 군에 따르면 행정안전부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적극행정 제도 추진 실적 및 사례 등을 점검한 결과, 광역자치단체 3곳과 기초자치단체 9곳 등 12곳이 우수 자치단체로 최종 선정됐다.

부안군은 충북 옥천군 음성군과 함께 기초자치단체 군(郡) 부문에 선정됐으며, 전북 도내 군 단위에서는 유일하다.

부안군은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과 우수공무원 선발을 통한 인센티브 제공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적극과 관계없이 소통하는 수평적 문화와 자율 행정을 통한 적극행정 조직문화가 그 결과로 해석된다.

특히, 곰소갯길식품센터 입주 업체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경신을 통해 도산위기에 구호한 적극행정 사례가 큰 호평을 받았다.

/부안=김석진 기자

부안군, 영농안정자금
60억원 융자 지원

부안군은 농업인을 대상으로 원활한 농업경영을 위한 2022년 영농안정자금 60억을 융자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부안군 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 1년 이상 농업에 종사한 농업인 및 생산자 단체로, 급리는 농가부담 1%, 3년 일시상환 조건이며 지원한도는 농업인 5,000만원, 생산자단체 7,000만원이다.

영농안정자금은 시설자금, 영농자재 및 농기계 구입 등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농지구입 및 유통기공시설 자금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2022년 2월 11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 산업팀에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후 금융기관 대출 가능 여부 확인을 거쳐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농가에 대해서는 2022년 2월 중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 지원할 계획이다.

/부안=김석진 기자

통합마케팅사업 집중 지원

고창황토배기유통, 농산물 유통사업 활성화로 2년 연속 '흑자'

고창군의 3대 현안사업 중 하나였던 '고창황토배기유통'이 정상화의 기지개를 켜고 있다.

25일 고창군은 (주)고창황토배기유통이 지난해 1억5000만원의 매출이익을 달성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2020년 880만원에 이은 2년 연속 매출이익 흑자로 코로나19 상황 속에서의 눈부신 성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해 황토배기유통은 수박→홍고추→고구마(수확사업)→질임배추 등으로 이어지는 '연중가동 판매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정착시켰다. 또 개

별적으로 출하하는 중소 농업인의 통합마케팅 출하시스템을 구축해 소농들의 안정적 판매를 도왔다.

특히 기존 농산물 유통사업의 물량 규모를 대폭 늘리고, 공동사업을 통해 유통 시설장비 가동율을 높이면서 경영 안정화를 꾀했다.

이에 더해 고창군과 함께 농특산품 드라이브스루를 열고, 지역의 우수한 농특산품 판매에 앞장서면서 군민과 함께하는 전문유통회사 이미지를 높였다.

앞서 고창군은 농산물 규모화를 통해 거래교섭력을 강화하고, 유통비용

절감과 안정적인 농산물 출하로 경영 안정을 위한 통합마케팅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올해도 모두 13개 사업(21억9200만원 상당)을 지원하면서 이와 연계한 농산물 유통사업에 활기를 더할 전망이다.

유기상 고창군수는 "고창군민들의 아픈 손가락이었던 황토배기유통이 뼈를 깎는 혁신과 미래비전으로 희망의 날개를 펴고 있다"며 "지역 농가들을 도와 군민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 천변로 생고을시장 인근에 예비 청년 창업자와 로컬 창작자를 위한 공간 공유가게 2호점 이 지난 21일 새롭게 문을 열었다

“청년들 마음껏 꿈을 펼치길”

정읍시-SK넥실리스, 공유가게 2호점 '아로마 무드' 신규 오픈

정읍시 천변로 생고을시장 인근에 예비 청년 창업자와 로컬 창작자를 위한 공간 '공유가게 2호점'이 지난 21일 새롭게 문을 열었다.

공유가게는 정읍시와 SK넥실리스가 지역사회 상생발전을 위해 손을 맞잡고 추진하는 지역 활성화 프로젝트다.

지역 자원을 활용해 사업적 가치를 창출하는 로컬 창작자와 청년 창업자가 관료를 마련하고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된 공간이다.

지난 10월 2호점에 입점한 '모어앤모어'의 운영 기간이 종료함에 따라 국혜린 대표가 이끄는 조항삼 '아로마 무드'가 신규 입점하게 됐다.

'아로마 무드'는 고유의 향기 레시피 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다. 최근 정읍시 도시재생 프로그램에 참여해 정읍의 오향을 담은 향기 제품을 개발하고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 바 있다.

아로마 무드는 시민과 방문객에게 다양한 문화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정읍의 명소와 음식 등 잠재 가치를 담은 제품 개발을 통해 정읍의 특장점을 널리 알리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정읍 향수 5종과 다양한 향기 제품을 선보이고, 나만의 향기를 만들어보는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과 방문객들의 오감을 만족시킨다는 전략이다.

아로마 무드는 새로운 시작을 기념하며 1월 말일까지 오픈 이벤트도 진행한다.

해당 이벤트는 조인정읍 SNS 계정(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당근마켓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청년들이 공유가게에서 마음껏 꿈을 펼치며 가게 운영 경험과 노하우를 쌓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민간기업과 함께 지역사회 상생 기반 구축을 위한 선순환 구조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유가게는 3~6개월 단위의 팝업스토어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군, 관내 첫 스마트도서관 운영

부안군이 격포 꽃내음센터 옆 스마트도서관을 설치하고 지난 24일 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고 25일 밝혔다.

스마트도서관은 책을 대출하고 반납할 수 있는 무인 자동화기기이며 최대 500권 정도의 도서가 소장돼 있다.

스마트도서관은 365일 24시간 언제든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 번안민 뿐 아니라 격포를 찾는 관광객들까지 신분증이나 군립도서관 회원증만 있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1인 2권까지 최대 14일간 대출할 수 있다.

신간 및 베스트셀러 위주로 일반 교

양도서 외에 아동도서까지 비치되어 있어 다양한 계층이 이용할 수 있으며 부안군립도서관 홈페이지에서도 스마트도서관 소장도서 검색이 가능하다.

부안군 유안숙 교육청소년 과장은 "비싼 일상 등으로 책과 쉽게 접할 수 없는 군민들에게 도서관 접근성 개선과 이용 편의를 제공하고자 스마트도서관을 도입했다."

이를 계기로 군민들이 책을 더 가까이 여기고 나아가 독서 생활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부안=김석진 기자

부안시외버스터미널 신축사업 본격화

49년 역사 마감... 지상 2층 교통·문화터미널 변신

25일 기존 터미널 건축물 철거가 시작되면서 부안시외버스터미널 신축사업이 본격화되었다.

부안시외버스터미널이 지난 1974년 준공되어 운영된 지 49년 만이다.

부안시외버스터미널은 오는 3월경 본 공사에 착수하여 금년 8월경 준공되면 터미널 본래의 기능에 더하여 판매시설, 문화 공간 등을 갖추고 지상 2층 연면적 1,772㎡의 교통·문화터미널로 변신하게 된다.

부안시외버스터미널은 과거에 부안읍 상권의 중심지로서 버스를 타는 사람들로 가득 했으며 이와 더불어 인근 상가와 점포도 활기를 띠었다.

하지만 터미널이 노후화되면서 상권이 일부 쇠락하기 시작하였고, 재작년부터 코로나19 감염증 사태까지 지되면서 버스 운행 횟수가 줄어들고 이용객이 급감하여 부안터미널 사업자는 물론이고 인근 점포 상인들까지 적지 않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제 부안시외버스터미널 신축이 마



25일 기존 터미널 건축물 철거가 시작되면서 부안시외버스터미널 신축사업이 본격화되었다

무리되면 부안의 교통·문화·상권의 허브(hub)로서 인근의 부안복합커뮤니티센터와 더불어 부안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떠오를 것이며 기대되며, 주변 상권도 다시 활기를 되찾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권익현 부안군수는 터미널 철

거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임시대합실 운영에 따른 불편사항 등을 듣기 위해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였으며 '부안시외버스터미널'은 단순히 버스를 타는 장소에서 벗어나 문화 복합공간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밝혔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 최재용 부시장, 설 맞아 시설·단체 위문 나서

정읍시 최재용 부시장은 설 명절을 맞아 25일 사회복지시설·단체를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하는 등 나눔이 함께 하는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이날 위문은 명절을 앞두고 복지시설 이용자와 종사자들을 위로하고, 따뜻한 정이 넘치는 설 명절을 함께 나누기 위해 마련했다.

최재용 부시장은 내장산동 소재 은혜의 집(노인요양시설)과 정읍노인복지요양원(노인요양시설)을 방문해 시설을 둘러보며 시설 운영에 관한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또한 시설관계자들의 노고와 입소자들을 위로·격려하며 백미와 물티슈 등 212만원 상당의 위문 물품을 전달

했다. 최재용 부시장은 "따뜻한 명절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정읍시청 전 직원들이 시설과 단체 등을 방문하고 위문품을 전달하며 이웃사랑 실천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소외되는 사람 없이 시민 모두가 정이 넘치는 명절을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